

민생 중심 도정운영시스템 가동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단장으로 '다함께 민생정책 추진단' 킷오프 회의 오늘 개최 신규시책 발굴·기존사업 확대 등 도민 체감도 향상...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 등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정책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에 따라 도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 특별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1호 결재로 '다함께 민생 도정 운영계획'에 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더 나은 도민의 삶, 도민이 함께 잘 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기 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함께 민생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도정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정책추진단'이 구성돼 2월 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추진단은 행정·경제부처사 공동부담장 체제로 경제, 복지, 건설 등 주요 민생분야의 실·국 부서와 전

북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민생시책을 점검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분야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분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등, 복지분야에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건설분야에는 주거 취약층, 건설기업인, 교통이용자 등을 위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만족도가 높은 기존 사업은 지원대상, 규모 등을 확대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도정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던 정책조정회의를 민생정책조정회의와 정책조정회의로 각각 1회씩 개편·운영한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다함께 민생 특별대책'에 포함된 민생시책을 보완·확정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일 찾아가는 현장정책간담회를 실시해 민생현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한 민생문제 발생 시 '다함께 민생정책추진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위기에는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어,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원코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민생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 및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자치도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전주 모래내시장서 장보기·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5일,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보기 행사 및 이용 캠페인을 벌였다.

국주영은 의장(전주12)과 김이재(전주4), 이병철(전주7), 김명지(전주11), 최형열(전주5), 이명연(전주10), 강동화(전주8)의원은 전주 모래내시장 강경표 상인회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논의하고 이어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운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화장지 등을 구매하고, 이를 전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이번 명절에도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질 좋은 상품 등을 구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통시장의 가치를 강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협약 5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최학수 허버드대의공학 나노메디슨연구소장, 송철규 전북대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정병업 한국원자력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장등 참석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청소년 아침밥·어르신 건보 보장성 강화'

새로운미래, 제1차 책임위원회 열고 '첫 총선 공약 발표'

지난 4일 중앙당을 창당한 새로운미래가 5일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와 어르신 국민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 등 첫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은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책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샌드위치, 주먹밥 등 아침 식사를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건강을 챙기겠다"며 먼저 결실률이 높은 고교부터 시행하고, 중학교·초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40% 인하 △중증 치매 환자 본인 일부 부담률 10%~6% 인하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 현행 2개~4개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회의에서 당 책임위원으로 신경민·박원석·김영선·신정현·양소영 위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제3세대 대통령

을 위한 실무 준비를 전담할 대통령 권한 대표를 겸임하기로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바꾸는 게 저희의 숙제"라며 "새로운미래를 발 빠르게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원욱·조용천 의원이 새로운미래 창당에 불참한 것과 관련, "흡수통합, 주도권 다툼 등 사실의 왜곡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고 고도 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설 명절

청렴서한문 발송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서한문을 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과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한문에는 직무관련자 등에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며, 학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원들에게는 도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과 갑질 없는 출근하고 싶어하는 직장 만들기, 청렴의 일상화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공직자강 확립과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 도본청·산하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강을 실시, 청렴방송과 청원대상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청렴 관심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 만남 자체,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제보 안내 등이다. /김재훈 기자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가 정책공약 시민 참여 제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황현선의 정책은행 전주덕진점(https://bit.ly/황현선의_정책은행)'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황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책은행'은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제안 등을 자유롭게 남기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황 예비후보는 "정치가 해야 할 일,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듣겠다"며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들이 발언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전혀 없다"고 지적, 플랫폼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황 예비후보의 '정책은행 전주 덕진



점에는 교통, 교육문화시설, 전북 정치에 대한 의견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황현선 후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공약에 반영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은행 전주 덕진점'의 자세한 내용은 황현선 블로그 또는 별도의 온라인 웹페이지(https://bit.ly/황현선의_정책은행)에서 볼 수 있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주를 예비후보 4명, "공명 경선, 깨끗한 승복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를 일부 예비후보들이 총선 승리와 함께 정권 심판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박진만·양경숙·이덕춘·최형재 예비후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과 그 결과에 깨끗한 승복'을 약속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전주의 미래를

위해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올바른 정책선거 지향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고,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한 승복 △경선 후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고 상호 우수 정책과 인력 포용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 후보의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특별취재반